

근대 일본 사회의 원한의 한 계보*

이영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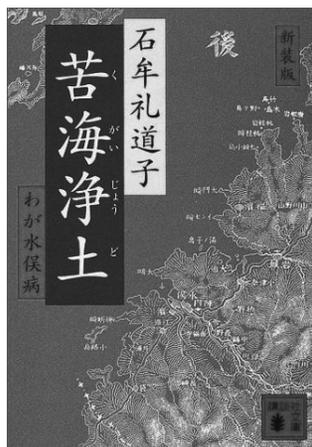
번역서들 중에서는 가끔씩 소리 소문 없이 세상에 나와 잊혀져버리는 책들이 있다. 이시무레 미치코(石牟礼道子)의 『苦海浄土: わが水俣病』

이영진(李榮眞)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일본 지역을 전공하였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산화(散華)와 ‘난사’(難死): 전후 일본의 특공의 기억과 재현에 관한 연구」(2012), 「전후 일본과 애도의 정치: 전쟁체험의 의의와 그 한계」(2013), 「과국과 분노: 3·11 이후 일본 사회의 脫원전 집회를 중심으로」(2014)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 이 글을 쓰게 된 하나의 계기는 2014년 1학기 연세대학교의 강의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시무레 미치코의 저작을 읽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로그에 끄적거렸던 글을 이렇게 지면을 통해 재언어화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미나마타의 아픔이 저 이웃나라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위기감, 그리고 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만연한 관성과 허무주의 때문이었다. 얼마 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7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며칠 후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압도적인 무게 때문에, 이 사건은 바로 묻혀버렸다. 아니, 온갖 특종들이 범람하는 2014년의 한국사회에서 이런 뉴스는 언제든지 소리 없이 잊혀지고 있다. 이 책을 다시 읽고, 또 어설픈 재주밖에 갖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런 망각에 대한 저항 때문이다. 질환은 다르지만 발병과 뒤처리에 있어서는 너무나 비슷한 현실의 사태를 이해하고, 또 싸워나가기 위해서도 미나마타병과 싸워온 전후 일본의 역사를 다시금 상기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함께 책을 읽고 많은 이야기를 해준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편집자 주: 이 글은 『일본비평』이 국내 일본학계의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평 현

(『슬픈 미나마타』, 김경인 옮김, 달팽이, 2007)도 그런 책들 중 하나다. 내가 이 책의 소재를 알게 된 것은 『역사학연구』(歴史学 研究) 569호(1987) 특집 <과거를 향하는 마음>에 실린 다키자와 히데키(滝沢秀 樹)의 글 「원과 한: 민중사의 방법과 관 련하여」(怨と恨: 民衆史の方法に關連して) 를 통해서였다.



민중사의 시각에서 일본 사회의 원(怨)과 한국사회의 한(恨)이라는 감정을 비교하면서, 민중들의 원한을 억압해 온 일본 사회의 문제,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풀이’라는 행위의 의미를 고찰했던 이 글은 전후 일본사회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s)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내게 매우 흥미롭고 신선한 시각을 준 텍스트로 기억된다. 이시무레 미치코의 작품 세계는 이 글의 말미에 잠깐 소개되고 있었다. 메이지 이래로 일본 사회의 분노나 원한은 끊임없이 억압되어 왔지만 결코 그것은 소멸되지 않고 전후에도 계속 터져 나온다. 이시무레 미치코의 일련의 작품들은 바로 그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슬픈 미나마타』는 1960년대 일본 사회의 고도자본주의화에 경종을 울린 대표적인 공해병, ‘미나마타병’을 테마로, 미나마타 지역의 공동체에 장기간 거주하면서(이시무레 자신이 그 인근 지역 출신이기도 하다) 조사 취재한 기록문학 작품으로, 그녀가 써내려간 미나마타 연작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이다. 이번 공모는 『일본비평』 9호 「애국소년론: ‘일본적 성장소설’ 친황 서사의 구조」의 필자 오쓰카 에이지(大塚英志) 교수가 기탁한 원고료를 재원으로 시행되었다.

일제 식민지 시기 압록강의 물을 동쪽으로 돌려 수력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 사회 교과서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겠지만, 문제의 회사인 ‘일본질소비료공장’(이하 일본질소)은 바로 그 전기를 이용하여 당시 ‘동양 최대’라고 자부하던 거대한 화학단지 ‘홍남 콤플렉스’를 만든 회사였다. 이름하여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1927, 이하 조선질소). 그 창립자인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는 단순한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홍남이라는 도시 자체를 만들어낸 존재로서 일대의 제왕으로 군림했다(1년 만에 홍남읍으로 승격된 이 도시의 초대 읍장은 조선질소의 대표인 노구치 자신이었다고 한다. 실로 노구치 왕국이라 불릴 만한 것이다). 일본질소라는 회사의 소위 ‘시초 축적’이 이루어진 공간이 바로 이곳, 조선 홍남이었다는 것을 우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시무라 역시 그 전사(前史)에 착목하여, “1927년 5월 2일 자본금 1,000만 엔을 가지고 조선 함경남도 함흥군 운전(雲田)면 호남리 1번지에 설립된 이 회사의 폐기물이 당시 이 땅에 어떤 가공할 파괴를 낳았을까” 하는 의문을 던진다. 자신에게 그 파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하물며 1960년대 자국민에 대해서도 그렇거늘 식민지인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회사가 과연 자신들이 만들어낸 폐기물에 제대로 처리했을까라는 음울한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¹

다이쇼 15년(1926년) 말에 촬영한 호남리의 망망하고 둥글게 모여 있는 어촌 집단. 이곳에는 어떤 생활과 일상과, 그리고 마을들이 존재했을까? (중

1 당시 이시무라는 확인할 수 없다고 썼지만 공단이 설립된 지 얼마 지난 1934년부터 「홍남 일대 소아병 만연」(1934. 1. 21), 「정체 모를 유행병 홍남에 대장궐」(1934. 11. 3), 「홍남 지방에 소아 사망 격증」(1936. 2. 12), 「각 어장에 대타격 홍남공장의 배수 유독으로」(1939. 6. 7)와 같은 신문 기사(이상, 『조선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30년대 홍남은 “전염병 도시” 혹은 “병마의 도시”로 불리고 있었다. 이상, 짓소의 도시였던 조선 홍남의 성장과 그 변모에 대해서는 차승기의 연구(「자본, 기술, 생명: 홍남-미나마타[水俣]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 전후」, 『사이間SAI』 제14호, 2013)를 참고할 것.

략) '무궁한 국운과 당사의 전례 없는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호남리 마을 주민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책장을 펼치자 박경식 저, 『조선인강제연행의 기록』(1965)과 함께 호남리의 해변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 그 사진의 오른쪽 위에 있는 또 한 장의 사진과 설명—아래는 흥남공장 용지 매수의 사진인데, 매수는 경찰관의 참관 하에 이뤄졌다. (중략) 조선 함경남도 함흥군 운전면 호남리라는 바닷가 마을이 소실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수한 호남리 마을이 조선에서 사라지고,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민족적 저주가 죽음으로 바뀌고, 차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나는 수없이 많이 알고 있다. 이 나라의 탄광이나 강제수용소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등에서. 이 열도의 뺏속 깊이 서린 고통 속에. 그런 고통은 또 앞으로 찾아올 나의 세월 속에 있다.²

1945년 패전 후 조선에서 철수하면서 일본질소는 조선에서 활동했던 기술 인력들을 토대로 회사의 원 설립지이기도 했던 미나마타 지역에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면서, 명칭도 '신일본질소비료'(1950)로, 그리고 1965년 이후에는 '깃소'(チッソ)로 개칭한다. 처음에는 시골 벽지의 경제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전 지역 주민들의 환호 속에 세워진 화학공장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미나마타의 바다가 검게 물들어가기 시작한다. 첫 징조부터 불길했다. 지역에 살던 고양이들이 이상한 경기를 일으키며 죽어가고, 심지어 일부 고양이들은 바다를 향해 뛰어 들었다. 그러더니 점차 마을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갔다. 그 사람들은 질소공장이라는 근대자본주의가 가져다 주는 '혜택'에서 가장 멀었던 바다의 '건강한' 어부들이었다. 원양어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조그만 배를 타고 근처 앞바다로 나가 그날 먹을

2 이시무레 미치코, 김경인 옮김, 『슬픈 미나마타』, 달팽이, 2007, 242-244쪽.

생선을 잡고 하루 세 끼 밥 대신 물고기를 먹던, 전후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의 그늘에 있던 그들이, 바로 그 고도성장의 가장 커다란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시무레가 그려내는 미나마타병 환자들의 증상은 처참함 그 자체다. 깨끗한 바다에서 바다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던 그토록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손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걸음을 잘 못 걷고(무도병 증세) 경기를 일으키다가 속속 죽어나가는 것이다. 당시 미나마타병을 처음으로 발견한 호소카와 하지메(細川一) 박사는 그 증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환자들의 공통적인 증상은 처음엔 손발 끝이 저려서 물건을 쥐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걸어보려고 하면 꼬꾸라지기 일쑤고,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말을 할라치면 한마디씩, 길게 늘어지고 어린양을 부리는 것 같은 말투가 된다. 혀도 마비가 되어 맛도 모르고 삼킬 수도 없다.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고, 귀가 안 들린다. 손발이 떨리고, 전신경련을 일으켜 남자 어른 두세 명이 달려들어도 진정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식사도 배설도 제 손으로 할 수 없게 된다.³

심지어 수은에 중독된 어패류를 먹지 않은 신생아들마저 선천성 미나마타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에 그들은 종종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문지방이나 미닫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해서 ‘버릇 없는’ 아이들로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버릇 없는’ 행동조차 아예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 아이들은 시각, 청각 등 감

3 이시무레 미치코, 『슬픈 미나마타』, 80쪽.

각이 모두 없어지고, 깊고도 조용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⁴ 당시만 해도 태반 속의 아기의 경우 어머니의 체내에 있는 오염물질의 증독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상식이었기 때문에 신생아들의 경우는 미나마타병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들의 증상이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 중 누군가가 죽어야 했고, 그 죽은 아이의 시체가 해부되어야 했다. 하나의 증상이 질병으로 공적으로 인식되기까지의 ‘잔인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는 보상금을 둘러싼 인정투쟁의 가장 비극적인 양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보상금을 주지 않으려는 회사 측의 의도 때문에 말 그대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던 아이들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누군가 빨리 한 명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야만(그래서 그 아이가 해부대 위에 올라가 그들의 뇌와 장기가 미나마타병에 의해 침식되었음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미나마타병 자체가 당시로서는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이었기 때문에 그 증상과 원인을 ‘학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인정투쟁을 위한 ‘증거’가 확보되기까지의 십여 년의 세월 동안 많은 주민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죽어나가고, 그 기간에도 공장은 계속해서 폐수를 방류했다는 사실에까지 이르면,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보상금이라는 것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미나마타병(정확히는 증상) 발병 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공장 측은 아직 병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인 1959년 서둘러 환자모임과 ‘위로금’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는 회사 측의 성실한 의무 수행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미연에 회피하려는 ‘책략’임이 너무나 분명

4 구와바라 시세이, 김승곤 옮김, 『다큐멘터리 사진가: 미나마타·한국·베트남 취재기』, 눈빛, 2012, 55~58쪽 참조.

하게 드러난다.

아이의 생명 연간 3만 엔

어른의 생명 연간 10만 엔

사망자의 생명 30만 엔

장례비 2만 엔

물가가 오르자 1964년 4월에 생명의 가격이 조금 올라서

아이의 생명 연간 5만 엔

그 아이가 20세가 되면 8만 엔

25세가 되면 10만 엔

중증의 어른이 되면 11만 5천 엔

을(환자호조회)은 장래에 미나마타병이 갑(공장)의 공장 배수에서 기인한 것이 밝혀져도 새로운 보상 요구는 일절 하지 않기로 한다.⁵

이시무레는 아이 생명 연간 3만 엔, 어른 생명 연간 10만 엔이라는 바로 이것이 “일본국 1950년대의 인권사상이 등에 붙이고 다니던 가격표”라고 말한다. 또 하나 의미심장한 구절은, 아직 미나마타병이 공장의 폐수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회사가 붙인 “장래에 미나마타병이 공장의 배수에서 기인한 것이 밝혀져도 새로운 보상 요구는 일절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붙임으로써 병 때문에 생계를 꾸릴 수 없어 당장 한 푼이 아쉬운 가난한 어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위로금’(배상도 아니고, 심지어 보상도 아닌 위로금이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칭이 떠오르지 않는가. 배상도 아니고 심지어 보상도 아닌 ‘독립축하금’. 실로 동일한 논리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을

5 이시무레 미치코, 『슬픈 미나마타』, 264-265쪽.

‘협박’처럼 들이대면서 자신들이 나중에 감당해야 할 책임을 미연에 회피해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회사는 자체 내 실험을 통해 폐수가 미나마타병의 직접적 증상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를 숨기고 공표하지 않았다.

결국, 미나마타병은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본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의학진과 사회운동가들이 대거 미나마타로 몰려오면서, 그리고 1965년 니가타에서 제2의 미나마타병이 발병,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1968년, 최초 발병이 있던 지 15년 만에 마침내 공해병으로 정식 인정된다(하지만 이미 그보다 6년 전인 1962년 구마모토대학 의학부에 의해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미 400호 고양이 실험을 통해 그 원인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구마모토 대학의 논리에 대해 공장에서 배출된 무기수은이 왜 신체에 들어가면 유기수은으로 바뀌는지 알 수 없다고 반론을 폈던 공장 측의 행태를 더더군다나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969년 6월(미나마타병 제1차 소송: 미나마타의 29세대 112명이 질소 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냄)부터 진행된 일련의 재판들에서 피해 환자 측이 승소하면서 점차 구제의 길도 열리게 된다. ‘공해피해구제법’(1974년 ‘공해건강피해보상법’으로 바뀜)이 실행된 것도 이 해(1969년)다. 앞서 언급한 1959년의 ‘위로금’ 계약의 경우도, 계약 성립 시 계약자의 ‘무지’(innocence)로 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에 의해 무효가 선언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고무적 현실을 기록함에 있어, 미나마타병을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닌 급격한 산업화, 공업화를 거치면서 발전한 전후 일본 사회가 공통으로 겪어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하는데 공헌한 일군의 지식인들, 운동가들의 숨은 공로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구마모토 대학의 의학부 주임교수이자 당시 ‘미나마타학’이라는 자주강좌를 조직한 하라다 마사즈미(原田正純), 1960년대부터 미나마타병에 관심을 가지고 조

사를 시작해서 1970년대 도쿄대학 자주강좌 ‘공해원론’을 15년 동안이나 주재했던,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요주의 인물” 우이 준(宇井純), 1960년 7월 처음 미나마타를 방문해서 사진 촬영 허가를 요청했을 때 “사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라는 원장의 무거운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미나마타병의 참상을 사진으로 남겨 미나마타병을 전 일본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했던 사진작가 구와바라 시세이(桑原史成) 등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이미 미나마타병이 발견되고 폐수가 첫 의혹을 샀던 1956년, 혹은 첫 사망자가 나왔던 1957년, 그도 아니라면 이후 대량의 사망자가 속출하던 1959년의 시점에, 아니 그 이후라도 신속하게 대처했다라면 수많은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회사 측의 방해와 정부의 느장 대응으로 더욱 큰 참사를 낳았다는 점이다. 이는 미나마타병이 하나의 의학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라다 마사즈미 교수 등의 주도로 앞서 언급한 우이 준, 구와바라 시세이 등이 매주 강사로 참여한 ‘미나마타학’이라는 강좌를 개설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질병의 사회성에 대한 자각 때문이었다.⁶

또 하나, 그 동안 미나마타병 환자들은 질병이 주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전염’이나 ‘천형’ 등 의학적 지식의 부재가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 또 미나마타병 논란의 여파로 회사가 철수하면 지역

6 흥미롭게도 『슬픈 미나마타』가 번역되기 전 헤이자 미나마타병 발병 50주년인 2006년 2권의 귀중한 문헌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하라다 마사즈미, 『미나마타병: 끝나지 않은 아픔』(김양호 역, 한울), 하라다 마사즈미 외, 『끝나지 않은 수은의 공포: 미나마타학』(한국환경보건학회 역, 대학서림)이 그것이다. 특히 두 번째 책은 구마모토학원대학으로 교편을 옮긴 하라다 마사즈미 교수가 중심이 되어 만든 정식 강좌인 ‘미나마타학’의 2002년 강의록으로, 오랫동안 이 병과 싸워온 의사와 환자뿐 아니라 가해기업의 노동자, 매스컴, 사진가, 법학자, 공학자 등이 바라보는 미나마타병의 문제를 집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귀중한 책들 역시 소리 소문 없이 세상에 나와 잊혀져버린다는 것이다.

경제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시민들의 시선 때문에 맘대로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치러야 했음을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 미나마타뿐이라. 2011년 3월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것처럼 중앙과 지방의 착취-피착취 관계—왜 도쿄전력의 발전소가 간토에서 그렇게 떨어진, 오히려 도호쿠 지역에 가까운 후쿠시마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지역 주민들의 동의에 입각한 헤게모니적 지배 아래 작동하고 있는 현실은 근대 일본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변주되어 왔다.

1959년 11월 공장 배수 정지는 조업 정지라고 했던 종업원 대회의 밤을 경계로 하여, 하룻밤 사이에 어민들에게 등을 돌렸던 시민 감정의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대량살인에 대해서는 입을 싹 씻고, 어민을 폭도로 내몰고, 산업 유치에 핏대를 세우다 헛물만 켜고 있는 ‘농업 후진현, 보수 구마모토’의 여론을 그렇게 별 어려움 없이 물리치고 ‘위로금 계약서’에 조인하게 했던 시기를, 감쪽같이 잘 속여넘겼다고 좋아라 했을 그 시기를 기억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미 충분했다. 보다 밀도 높은 터부가 생겨나고 있었다. 터부여, 더 낮게 차갑게 얼어붙어라, 나는 생각했다. 터부가 고도로 응고되고 덩어리지면 변질되게 마련이다.⁷

법정에서의 승리. 하지만 “미나마타병임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벽이 남아 있었다. 실제로 고양이가 100퍼센트 멸종된 시라누이해 연안에 살던 20만 명의 사람들 중,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된 환자는 2,265명, 즉 기껏해야 1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미나마타병에 걸렸다고 하소연했지만 환경청과 미나마타병 의학전문

7 이시무라 미치코, 『슬픈 미나마타』, 277~278쪽.

가 회의는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며 심지어 “재판소의 미나마타병은 의학적이 아니다”고 항소했던 것이다. 그리고 보상금을 둘러싼 난항과 환자들이 보상금을 바라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우리도 종종 소위 ‘학문적’ 글들에서 확인하지 않는가. ‘객관적 가치 중립’이라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토해내는 일련의 목소리, 그리고 행위들을 ‘이해관계’니 ‘전략’(strategy)이니 하는 식으로 기술하는 글들을. 과연 그들은 한없이 추락해 가는 ‘절망의 심연’, 그리고 그 심연에서 터져 나오는 ‘원한’이라는 감정을 최소한 이해하려는 시도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어. 그 대신 회사의 잘난 사람들, 위에서부터 줄줄이 수은모액 마시라고 해. 위에서부터 차례로 42명이 죽을 때까지. 그 부인들도 마시라고 해.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가 태어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69명, 미나마타병에 걸리라고 해. 그리고 또 100명 정도 잠재 환자가 돼보라고 해. 그거면 충분하니까!⁸

여기서 ‘수은모액’은 1968년 5월 질소공장이 결국 미나마타병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 생산을 중지하고, 그에 부수한 유기수 폐수 100톤을 의미한다. 공장은 이 100톤의 폐수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드럼통에 주입하던 중 공장의 조합에게 들켜 저지당했고, 이후 이 유기수은모액은 ‘죄업의 상징’으로 남았다고 한다.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쩔거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당시 한국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착잡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제3의 미나마타병(제2의 미나마타병은 1960년대 중반 일본의 니가타에서 발생했다. 지역 사회의 신

8 이시무레 미치코, 『슬픈 미나마타』, 292쪽.

속한 대응과 회사와의 투쟁으로 이 사건은 ‘다행히’ 초기에 수습되고, 또 이 지역의 운동 세력은 이후 미나마타 지역과 연대하면서 미나마타 지역에 대한 보상의 길로 발전하기도 했다)이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었을 위험을 미연에 구해준 회사의 노동조합에 감사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

처음 책을 읽으면서 계속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근대 일본 사회의 민중들의 원한(怨み·恨み)이라는 문제였다. 메이지 시기를 거쳐 ‘전후’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는 민중들의 분노나 원한의 감정을 끊임 없이 억압해 온 사회라는 것은 이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⁹ 다시 말하면, 근대 일본이라는 ‘윤리적’ 세계는, 분노라는 감정을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즉 그러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미덕’에 반하는” 것으로 폄하하는,¹⁰ 그래서 “원(怨)과 한(恨)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한”¹¹ 사회라는 것이다. 패전 직후 일본 사회 내에서 소위 ‘전쟁체험파’(戦争体験派)를 중심으로 분노를 망각해 버린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전개된 바 있지만, 이 역시 전쟁의 그림자가 견혀가면서 소멸되어 버렸다. 이렇게 분노나 원한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

9 安田武, 『戦争体験: 1970年への遺書』, 未来社, 1994(1963); 石牟礼道子, 『苦海浄土: わが水俣病』, 講談社, 1969; 見田宗介, 『近代日本の心情の歴史: 流行歌の社会心理史』, 講談社, 1977; 滝沢秀樹, 「怨と恨: 民衆史の方法に関連して」, 歴史学研究会編集, 『歴史学研究』 569, 1987. 이러한 근대 일본의 민중의 심정의 세계를 당시의 유행가의 모티브를 통해 분석한 훌륭한 연구로 사회학자 미타 무네스케(見田宗介)의 작업(『近代日本の心情の歴史流行歌の社会心理史』)을 잠깐 소개하고 싶다. 미타에 따르면, 분노라는 모티브는 메이지 초기에 잠깐 등장해 유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결코 유행가의 주요한 모티브로 등장한 적이 없다. 그 대신에 등장하는 것이 원한(うらみ)이자, 뒤이어 ‘자포자기’(やけ)이며, 나아가 이는 체념과 미련으로 변질된다. 분노의 심정이 단순히 증오나 반발과 달리 ‘어떤 침해된 정의에 대한 의식에서 생기는’(橋川文三, 「失われた怒り」) 것이라고 한다면, 분노가 공동(共同)의 심정으로서 성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노를 지지하는 공동의 가치 체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 유행가의 모티브에서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메이지 초기의 민중운동의 좌절과 흡수, 그리고 청일,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제국화된 일본의 신민 스스로가 억압민족의 일원으로 전화하는 과정과 겹친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의 밀바탕인 비판정신은 시대를 거치면서 풍자로, 나아가 자포자기, 자조로 굴절되어 간다는 것이 미타의 해석이다.

10 安田武, 『戦争体験: 1970年への遺書』, 83쪽.

11 滝沢秀樹, 「怨と恨: 民衆史の方法に関連して」, 49쪽.

람직한 사회에서 일본 사회의 민중들은 항상 권력에 순응하며 살아왔다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원한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로 전화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의 한 측면을 찾고 싶었던 것이 이 책을 꺼내 들게 된 이유였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책은 ‘좋은’ 텍스트는 아니다. 저자의 강력하면서도 감각적인 문체, 그리고 미나마타병이라는 실체의 압도적인 무게감에 짓눌려 다른 생각들을 펼쳐나가는 것 자체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악마로서의 미나마타병에 대한 대립향으로서, 저자가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해 내고 있는 근대 이전의 미나마타 사회라는 구도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근대의 대립향으로 전근대를 찬미했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가벼운’ 비판이다. 왜 그녀는 지역 사회 주민들, 그것도 미나마타병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고, 또 그 자신들 역시 현재의 증상에 신음하는, 혹은 이들 환자들을 보면서 자신도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처지에 두려워하는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이런 아름다운 전근대의 세계를 그려냈을까. 오히려 이 작품은 이런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이 세상에서 추방당한 채 고헤정토(苦海淨土)를 헤쳐 나가는 사람들의 ‘그 후’(それから)를 포착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저자도 스스로 밝히듯이 이 책은 사회과학도, 엄밀한 의미의 르포도 아니다. 오히려 시의 언어와 산문의 언어가 서로 만나고 겹쳐지는 흔적(trace)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올 듯싶다.

밤 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은 역시, 바다야. 바다가 제일 좋았어.

봄부터 여름이 되면 바다 속에도 온갖 꽃들이 만발하지. 우리 바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바다 속에도 명소라는 게 있어. ‘찾잔코’에 ‘맨살여울’에 ‘검은 해협’ ‘사자

섬'까지.

빙 한 바퀴 돌면 익숙해진 우리 코에도, 여름이 시작될 무렵의 바다 향기가
풀풀 풍기거든. '회사' 냄새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바닷물도 흘러. 굴이며 말미잘이며 청각채며, 바닷물이 출렁이며 흐르는 곳
이면 어디나 꽃들이 한들한들거리지.

그 중에서도 특히 물고기가 아름답지. 말미잘은 만발한 국화꽃 같아. 청각
채는 바다 속 절벽에 잘 뻗은 가지모양을 층층이 이루고 있지.

툫은 눈이나 죽백나무 꽃가지 같아. 해초는 대숲 같고.

바다 속 풍경도 육지하고 똑같이, 봄도 가을도 여름도 겨울도 있다우. 나는
바다 속에는 반드시 용궁이 있다고 믿어. 꿈처럼 아름다울 거야. 바다에 질
러거나 하는 일은 죽어도 없어.¹²

2.

'전후 일본의 병리'라는 진단서의 원인란에 빨간 글씨로 '분노의 결여'
라고 기입했을 때 마음 한 구석에 있던 생각은 즐기치게 억압되어 왔던
'분노'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회복에 대한 희구였다. 오랜 진화의 과
정을 거치면서 몸속에 각인된 자연스러운 감정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
은 인위적인 억압에 의해 소멸될 수도, 혹은 잊혀질 수도 없는 것이 아
닐까.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전후 일본의 신문지면을 장식했던 '미이케
탄광 투쟁'이나 혹은 미나마타병, 혹은 나리타공항 개발을 둘러싼 일련
의 투쟁들은 그들이 결코 분노라는 감정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사실 내 머릿속에 맴돌던 것은 소위 '사죄'를 하러 미나마타 지

12 이시무레 미치코, 『슬픈 미나마타』, 139~140쪽.



역을 돌아다니는 짓소의 사장단들에게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으니 회사의 잘난 사람들 위에서부터 줄줄이 수은모액 마시라고 해”라고 퍼부었던 지역 주민들의 원한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전후 일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분노와 원한이라는 감정만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일까. 분노와 원한이 갖는 파괴적인 힘은 항상 이렇듯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향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후지와라 신야(藤原新也)의 『黄泉の犬』(『황천의 개』, 김옥 옮김, 청어람미디어, 2009)에 실린 「피비우스의 바다」는 이시무레 미치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나마타병의 원한, 분노라는 감정이 갖는 어두운 힘을 상기시키고 있다. 미나마타는 그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아니 분노라는 감정은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1995년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무수한 사상자를 낸(12명 사망, 5,510명 중경상) 지하철사건사건의 주모자이기도 했던 음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의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 그의 고향인 야쓰시로로 갔던 후지와라는 야쓰시로가 유기수은으로 인해 죽음의 바다로 변했던 ‘시라누이’(不知火) —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바다의 이름이기도 한 ‘시라누이’는 여름밤 야쓰시로 바다를 비추는 무수히 반짝이는 불빛, ‘고깃배의 불’이라고도 불리던 야광충을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세속을 초월한 아름다움과 처절한 원한이 시라누이라는 단어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 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다. 동시에 아사하라가 소년 시절부터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은 시력장애

자였고 그의 소년기는 이 지역에서 미나마타병이 가장 위세를 떨치던 시기와 그대로 겹쳐진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미나마타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시야 협착’이었다. 여기서 한없이 조용한 ‘시라누이’ 바다에서 “아사하라 쇼코의 시력장애는 수은에 중독된 바다, 즉 미나마타병이 원인은 아니었을까”라는 물음과 함께, ‘고양이의 무도’라는 증상 그대로 경기를 하며 쓰러져갔던 미나마타 주민들과 1995년 도쿄의 지하철에서 몸을 부르르 떨며 죽어가던 사람들의 영상이 겹쳐서 떠오른 것은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하나의 ‘가설’ 혹은 ‘상상’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사하라 쇼코가 진정 미나마타병 환자였는가, 그리고 시야 협착이라는 증세가 일본국이나 천황제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분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물론 두 번째 가설은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터부를 또 한 번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병리학적인 문제보다는 원한이라는 감정의 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 지어 결론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 번째 가설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후지와라는 아사하라와 유년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리고 아사하라가 가장 존경했다는 그의 친형을 만나러 간다.

우여곡절 끝에 후지와라가 아사하라 쇼코의 형이기도 한 만코(그 역시 맹인이었다)를 찾아내 밝힌 진실은 아사하라 역시 당시 어부였던 자신이 시라누이 앞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고, 미나마타병 증상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당시 해당관청에 미나마타병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발병지인 미나마타와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당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에서 ‘빨갱이’로 몰렸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미나마타에서 아사하라가 보았던 전후 일본의 부조리, 병폐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원념이 ‘움진리교’, 나

아가 1995년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한 ‘도쿄지하철사린사건’이라는 전후 일본 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복수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은 (아사하라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혹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밝혀낼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한, 나아가 그로 인한 증오의 감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한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강력한 힘으로도 전화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분노를 하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나아가 사회체제를 바꿔내는 긍정적인 힘으로 전화하려는 기획 그 자체는 실로 ‘나이브한’ 것이다.

강력한 힘을 가진 탈주선이 빠질 수 있는 ‘검은 구멍’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미 들뢰즈와 가타리가 설득력 있게 지적한 바 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이 결정화된 정념의 공동체는 가장 강력한 도주선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이들은 모두 물결에 이끌려 자기의식의 검은 구멍, 즉 죽음으로 향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¹³ 분노라는 감정을 사유하고 정치화하는 기획에 있어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는 논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는 없을까. 자신들의 ‘압제자’이기도 한 이스라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이드(E. Said)는, 팔레스타인인을 차별하는 검문소 경험에 대해 “당신은 우리를 증오하고 있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오, 이상하게도 증오는 내가 느끼지 않는 감정 중의 하나입니다. 분노 쪽이 훨씬 건설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사이드에게 있어 ‘증오’와 ‘분노’라는 두 감정을 구별하는 잣대는 무엇이었을까.

사이드의 위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사카이 다카시(酒井隆史)는 증오는 “증오를 낳는 근본 원인을 근절하고자 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결과들(한 명의 인간이나 어떤 집단)을 배격하거나 아예 없앴으로써 카타르시스

13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Deluze, Gille and Felix Guattari), 김재인 옮김, 『천의 고원 Mille Plateaux』, 새물결, 2001(1980), 256~257쪽.

를 얻는 감정”을 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2차대전 시기, 일본 군부가 미국과 유럽의 연합군을 ‘귀축미영’(鬼畜米英)이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에게 그들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도록 강요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마치 조지 오웰(G. Orwell)의 『1984년』에서의 ‘증오의 시간’이나 크메르 루즈가 쫓겨난 이후 새로 성립된 캄보디아 정권이 크메르 루즈의 학살을 상기시키기 위해 만든 ‘증오의 날’과 같이], 증오가 내부의 불만을 불특정한 타자에게 투사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 측의 전략에 휘둘리기 쉬운 감정이라면, 분노는 증오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총체적인 상황이나 제도를 파괴·해체하는 힘의 기반이라는 것이다.¹⁴

하지만 현실정치에서 이렇듯 증오와 분노를 칼로 두부 자르듯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증오가 갖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성격만을 부각시키면서 체제 측은 끊임없이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분노의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억압하려는 것은 아닐까.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탈원전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착각이 아니길 바라는 착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12년 여름의 절정 이후 탈원전을 외치던 거리의 소리들은 점점 잦아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뒤이은 총선에서 전후 원전 개발을 국책으로 끌고 갔던 자민당은 압승했다. 도쿄 올림픽 개최권을 따내기 위해 전 세계를 향해 호언장담하던 아베 총리의 말처럼 이제 원전 문제는 수습기에 접어든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정부와 도쿄전력이 사태를 가리는 데 급급해 있는 동안 탈원전을 외치던

14 사카이 다카시, 김은주 역, 『폭력의 철학: 지배와 저항의 논리』, 산ন, 2007, 57~61쪽.

거리의 열기가 제풀에 꺾인 것일까.¹⁵

이렇듯 꺼져버린 불씨를 다시금 되살려내기 위해서도 3·11 이후 일본 사회에 터져 나온 이러한 감정들의 표출이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한 성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파국의 혼란이 주는 위협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러한 파국에서 싹트는 새로운 힘을 '선취'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그 분노를 단순한 증오가 아닌 현 사회의 모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깨트려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감정이자 힘으로 어떻게 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동시대인의 시점에서 함께 고민해(선취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근대 일본 사회에서 원한, 분노라는 감정의 흔적들을 추적해 나가는 작업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영진(2014), 「파국과 분노: 3·11 이후 일본사회의 탈원전 집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7(1).
- 차승기(2013), 「자본, 기술, 생명: 홍남-미나마타[水俣]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전후」, 『사이간 SAI』 14.
- 見田宗介(1977), 『近代日本の心情の歴史: 流行歌の社会心理史』, 東京: 講談社.
- 藤原新也, 김옥 옮김(2009), 『황천의 개』, 청어람 미디어.
- 滝沢秀樹(1987), 「怨と恨: 民衆史の方法に関連して」, 歴史学研究会 編集, 『歴史学研究』, 569.
- 桑原史成, 김승곤 옮김(2012), 『다큐멘터리 사진가: 미나마타·한국·베트남 취재기』, 눈빛.
- 石牟礼道子, 김경인 옮김(2007), 『슬픈 미나마타』(원제: 苦海浄土), 달팽이.
- 安田武 1994[1963], 『戦争体験: 1970年への遺書』, 東京: 未来社.

15 2011년 3·11 이후 일본 사회의 탈원전 운동에서 표출된 감정성과 그것의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해서는 이영진, 「파국과 분노: 3·11 이후 일본 사회의 탈원전 집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47집 1호, 2014 참조.

原田正純, 김양호 역(2006), 『미나마타병: 끝나지 않은 아픔』, 한울.

原田正純 外, 한국환경보건학회 역(2006), 『끝나지 않은 수은의 공포: 미나마타학』, 대학서림.

酒井隆史, 김은주 역(2007), 『폭력의 철학: 지배와 저항의 논리』, 산문.

Deluze, Gille and Felix Guattari, 김재인 옮김, 2001[1980], 『천의 고원』(원제: *Mille Plateaux*), 새물결.